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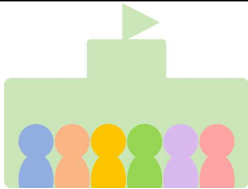
제 44회 장애인의 날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봄을 맞아 피어나는 꽃처럼 새 학년을 맞아 열심히 생활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많은 기쁨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입니다.

1

통합교육 안내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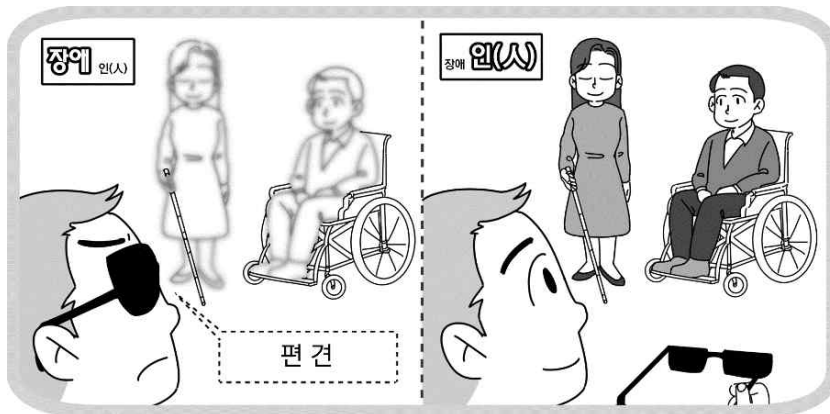
장애학생은 또래집단과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나와는 조금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장애인 등록을 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장애에 대한 시선



같은 풍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바라봅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라는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게 됩니다.

편견의 눈을 벗어나면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절, 알아둡시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바른 언어 사용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해례한 표현은 마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 반보 앞에서 걸기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 보고, 이름표나 소재물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 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움 없이 있는지 먼저 묻기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출처: 교육부)

2024년 4월 19일

인천 불로초등학교장